

# 통합에 즈음하여

## About the time of unification

도심의 한가운데서도 매미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절입니다.

매미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10년 가까운 세월을 땅속에서 애벌레로 살다 매미가 되어 고작 일주일을 살고 죽는다는 매미의 삶이 떠오릅니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암매미를 부르는 숫매미의 울음은 단어의 뜻 그대로 단발마의 비명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네 삶도 긴 역사의 흐름 앞에선 매미의 삶과 다르지 않겠지요. 그런데 삶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매미처럼 온 몸으로 울어대는 노력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날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국제위원으로 활동하다 새건축사협회를 창립해서 일한지도 8년이 되어갑니다. 새건축 협회에 대한건축사협회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이런 저런 감정의 수석임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건축 협회의 활동이 건축계, 그리고 건축사들을 위한 애씀으로 이해되었고 결국 3단체 통합을 이루는데 새건축이 일조를 하게 된 것이 건축계를 위한 역사적 소명의 한 축을 담당한 것이란 자평으로 조금은 편안한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새건축의 회장이 건축사지에 글을 게재하게 된 것 자체가 그간 건축계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건축계의 많은 선배분들이 불가능할거라 여겼던 통합이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우려되는 것들을 생각해봅니다.

우선 통합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통합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지남하고 힘들어 통합자체가 목표가 되어 버리는 것 같은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야겠습니다. 통합은 이제껏 비효율적으로 움직였던 협회들의 활동을 효율적이고 선진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통합을 위한 큰 파도를 넘었으면 통합 이후의 준비를 차근차근해 나아가야겠습니다. 통합결정 이후 회원가입과 같은 구체적 사항부터 통합협회의 비전과 미션 같은 큰 사항까지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건축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정책들을 강구하는 노력과 이제까지 늘 당해왔던, 왜곡된 건축 관련법과 제도의 분석과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건축사들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협회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름으로 통합 이전의 흔적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지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3단체의 정체성이 달라 한지붕 세가족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대 당 통합을 한 정치 권에서 벌어지는 상황처럼 계파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합을 위한 회의를 할 때에 불쑥 불쑥 생기는 골 깊은 갈등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협회의 유, 불리를 따질 때입니다. 통합이 되면 하나의 협회가 되는 것입니다.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 진정한 통합을 위해선 자신이 속한 협회에서 배신자라 불릴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위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위원들은 과거와 현재에 발목이 잡혀있는 것이 아닌,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새 숲은 새 부대에' 라는 성구처럼 우리 앞에 새로이만 들어질 새로운 형식에는 파편화된 옛 내용들이 아닌, 통합된 새로운 내용들이 담겨져야 합니다. 각 협회의 회원들 역시 기존 협회에 대한 미련을 뒤로 하고 새로 만들어질 통합된 협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꿔나가길 기대합니다. 통합된 협회는 후배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될 미래 위한 형식입니다.

3단체의 회원들이 총회를 통해 동의한, 통합이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가 마련되었고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결정되었습니다. 이 총론을 가로막는 각론들 특히 기존 협회들의 입장과 이익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각론들은 이제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 통합을 지연시킬 각론들이 부분적인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큰 틀로 볼 때는 하나가 될 미래를 부정하는, 안쓰러운 소아적 행위일 뿐입니다.

지면을 빌어 그간 통합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수많은 건축계의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단체 통합을 위한 우리의 선한 노력들이 어두운 건축계의 새벽을 밝히는 폭발적인 매미의 울음으로 기억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이필훈 / Lee, Pil-hoon**  
새건축사협회 회장

**약력**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대학 산업대학원 졸업
- Ohio State Univ.,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M.Arch.)
- (주)성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국토해양부 중앙심의위원
- APEC 건축사 위원회 심의위원